

중소 출신 두 의원, 친정 위한 목소리 ‘눈길’

(소상공인·중소업계)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기업기본법 1차 관문 통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당 강령에 소상공인 명문화 역할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소상공인·중소기업계에 몸을 담았다가 국회로 간 초선 의원들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위한 ‘광복행보’가 눈에 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출신인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적이다.

10일 관련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경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안심사 소위에서 원안 가결돼 첫 관문을 넘었다.

김 의원은 앞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 등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도 중소기업과 같은 지위를 부여,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같은 당 의원 13명을 포함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도 21대 국회 출범에 앞서

여·야에 전달한 ‘중소기업계 제언’에서 이들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배제돼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설립한 조합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게다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설립한 생협 등은 모두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면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김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킬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공

동사업 운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한 추세와도 부합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최승재 의원은 소속인 국민의힘의 새 강령에 ‘소상공인 지원’을 명문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개정된 강령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장을 돕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기본정책으로 내세운 ‘10대 약속’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장과 고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당내 의원들을 한명씩 찾다니

면서 의미를 설명하는 등 적지 않은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정당 강령에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그것도 제1야당이 앞서서 정강에 ‘소상공인 지원’을 명문화한 것을 두고 오히려 여당이 허를 찔린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또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상공인복지법’을 첫 발의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최 의원 외에도 여·야 구분없이 총 50명의 의원이 발의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복지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기본소득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선 소상공인복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영업중지 행정명령을 받은 곳들이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LG하우시스 인조대리석 美서 ‘친환경 인증’ 받아

LG하우시스의 인조대리석이 재활용 원자재 사용을 인정받아 미국 국제인증기구 ‘SCS글로벌서비스’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다. 인조대리석은 주방·욕실 등의 실내 공간부터 건물 외관까지 두루 사용되는 건축물 내외장재다. LG하우시스는 LG Z:IN 인조대리석 ‘하이마크-그라나이트’ 3종과 ‘하이마크-볼케닉스’ 3종 등 총 6개 제품이 미국 SCS글로벌서비스로부터 ‘SCS 재활용 원료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LG하우시스의 6개 인조대리석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모두 10% 이상의 재활용 인조대리석 원자재를 사용해 SCS 재활용원료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하이마크-그라나이트’는 약 40종의 다양한 색상과 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주방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장기 고객 렌탈료 할인 이벤트

코웨이는 이달 말까지 얼음정수기 5년 이상 장기 고객을 위해 신규 얼음정수기 렌탈료를 할인해주는 고객 감사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얼음정수기 고객 감사 특별 프로모션’은 오랜기간 코웨이 얼음정수기를 사랑해준 고객들의 높은 성원에 보답하고, 구형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기존 장기 가입 고객을 위한 재렌탈 할인 요금제에 추가적으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재렌탈 요금제’란 5년 이상 제품 사용 후 신제품 렌탈시 일반 렌탈료보다 10~15%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는 코웨이의 장기 고객 우대 혜택으로 이번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한다.

김승호 기자

韓스타트업 5곳, 벤츠와 공동 프로젝트

중기부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 서울로보틱스·베스텔랩 등 선정

서울로보틱스, 코코넛사일로, 해피테크놀로지, 서틴스플로어, 베스텔랩이 메르세데스 벤츠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함께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에 참가하는 최종 5개팀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타트업 아우토반은 다임러 그룹이 모빌리티 분야에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설계한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이다.

2016년 다임러 독일 본사에서 시작해 미국, 중국, 인도 등 6개국에서 개최했으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 7번째다.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는 지난 7~8월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06개 스타트업이 신청해 2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된 5개팀은 오는 11월까지 ‘100일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의 프로젝트별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보유기술의 고도화와 시제품 개발·보완 등 신규 비즈니스 도입에 앞서 사전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 세

션’과 ‘멘토링 세션’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스타트업 아우토반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노하우도 전수받는다.

최종적으로 12월에 개최하는 ‘엑스포 데이’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참가팀에게는 독일 본사에서 글로벌 벤처캐피탈(VC)과 파트너사 등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설명과 투자 유치 등을 위한 피칭 기회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KCC글라스, 코리아오토글라스와 합병

국내 1위 유리회사와 자동차용 안전유리 회사가 합친다.

KCC글라스는 코리아오토글라스와 지난 9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에 대해 결의하고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회사는 유리 사업 일괄 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 사업 자로서의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KCC글라스와 코리아오토글라스는 오는 10월29일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어 최종 승인을 거친 뒤 12월1일까지 합병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KCC글라스는 건축용 유리, 코리아오토글라스는 자동차용 안전유리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용 안전유리의 경우 KCC글라스가 제조하는 판유리를 원재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해당 합병을 통한 일괄



김내환 KCC글라스 대표이사(왼쪽)와 우정철 코리아오토글라스 대표이사가 합병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CC

체계 구축으로 양사가 얻는 시너지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CC글라스는 합병을 통해 안정적인 유리 수급과 헤드업디스플레이(HUD)용 유리, 경량접합유리, 솔라 셀루프, 발열유리 등 고기능성 유리 개발 등을 통해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중소 ‘건강한 일터 자가진단’ 모형 나와

중기중앙회, 총복대와 공동개발

중소기업 스스로가 청년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요소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모형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총복대학교 이정환 교수팀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중소기업 건강한 일터 자가진단 모형’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건강한 일터 자가진단 모형’은 연봉수준, 성과보상, 근무환경, 기업건전성, 조직문화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 중소기업 내부 임직원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바탕으로 ‘일터 건강도’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일터 건강도’는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위 5개 분야에 대한 총 13개 문항별 임직원 만족도와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해 계산할 수 있으며, 각 임직원들의 일터 건강도 평균

값이 기업 단위의 일터 건강도’가 된다.

‘일터 건강도’의 분야별 가중치는 청년구직자들의 선호도 조사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성과보상(27.3%), 조직문화(22.7%), 근무환경(18.3%), 연봉수준(17.8%), 기업건전성(13.9%)으로 구성됐다.

이런 가운데 청년구직자들은 중소기업 중 ‘237만원 수준의 월 급여’, ‘일 자체를 즐겁고 재미있게 하면서 개인 생활을 존중받는 조직문화’, ‘출퇴근이 편리하고 복지제도가 우수한 근무환경’, ‘고용이 안정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 및 ‘연봉 외 인센티브’를 갖춘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업별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와 청년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까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쿠첸 ‘스타일링 밥솥’ 출시

쿠첸이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가전으로 ‘스타일링 밥솥’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글램 핑크(CJH-TPM0601iP), 아이보리 큐브(CJH-TPM0602iP), 민트 그린(CJH-TPM0600iP) 총 3가지의 새로운 컬러를 적용한 밥솥을 선보인다.

쿠첸의 ‘스타일링 밥솥’은 부드러운 색감의 핑크, 그린, 아이보리 색상을 적용했다. 다양한 주방 인테리어에 맞춘 듯이 어우러지는 색상으로 신혼가전에 제격이다. 글램 핑크와 민트 그린은 화이트 색상의 인테리어에 포인트를 주어 주방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든다.

신제품 ‘스타일링 밥솥’은 6인용 10인용 밥솥으로 신혼부부 등 1~3인 가구가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의 밥솥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